

착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4시 소성당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토) 예비신자교리	유초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중고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평일 미사		주일 12시 30분, 수·목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3시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나 분쟁 지역, 특히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2월 14일(일) '자선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12월 21일(일) 세례식 오후 1시 30분 대성전

12월 24일(수) 성탄대축일 밤미사 저녁 8시 오디토리움

12월 25일(목) 성탄대축일 낮미사 오후 2시 대성전

12월 31일(수) 송년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1월 1일(목)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2시 대성전

인도네시아 메단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자선주일 2차헌금

얼마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흉수와 산사태로 저희 빈첸시오회가 지원하고 있는 메단의 수녀원 주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식수 및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을 수녀님께서 급히 저희에게 요청해 오셨기에 이번 자선주일 2차헌금은 바로 이들을 돋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대림초 판매 안내

대림시기를 밝혀 줄 대림초(\$25)를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판매안내

성탄절을 맞아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판매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빈첸시오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오너먼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판매일 & 장소: 12월 14일, 21일 교종미사 후 캔틴

싱가포르 착한목자 청년회 안내

우리 본당 청년회는 만 19세 ~ 35세 미혼 형제 · 자매님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교우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파정, 봉사, 친교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Instagram : kcs._.youth](https://www.instagram.com/kcs._.youth)

단체별 연말결산 정리 및 예산안 작성

분과별, 단체별로 2025년 1년동안 지출한 금액 결산해주시고, 2025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제2주일(12월7일) 주일헌금 \$1,789, USD 10.

감사헌금 익명 \$500.

교무금 내신 분 (12월 6일~12월 12일)

김현길 안드레아 1-12월, 김봉희 파아 12월, 김형태 나콜라오 12월, 박성운 가브리엘 11,12월, 박재성 노엘 12월, 박진영 헬레나 12월, 안수빈 요안나 12월, 용창범 안드레아 11,12월, 이리라 비비나 12,1월, 이세완 크리스포 4-12월, 이철규 즈카르야 12월, 익명 8-12월. 전연경 낸시 12월, 최문기 빅토르 4-12월.

■ 14세대 \$3,250.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 DBS 113-00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할 때 **입금자 이름을 꼭 기재**하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6(토)	7(일)	평 일			
		9(화)	10(수)	11(목)	12(금)
4:00	2:00	9	10	11	12
39	139	12	32	11	14

***봉헌 가족** : 박창완 이냐시오 · 성은경 아녜스 가정

***새로오신 가족 환영합니다.** 유동진 요한 가족 (2구역 5번)

*교무금 현황 (11월말 기준)

책정률 35.19%(190/540세대)

납부율 19.44%(105/54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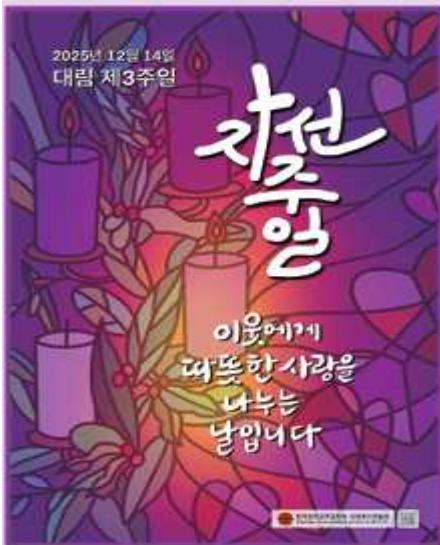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한해동안 납부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년 대림시기에 다음 해 봉헌액을 책정하오니 2026년 교무금 금액을 책정하여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저자씨

◆제1607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5년 12월 14일(가해)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제42회
자선 주일 포스터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이사 35,1-6ㄴ.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화답송

주 — — 님 저 희 — 를 구원하 려 오 — 소 — 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야고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복음환호송

알 렌 루 야 알 - 렌 루 야 알 렌 - 루 - 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마태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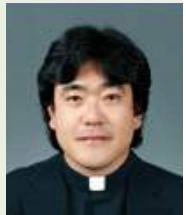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97 봉헌: 211 · 512 성체: 175 · 154 파견: 90 (성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김수창 루도비코 신부
사회복음화부장



사회복음화부는 교정사목, 이주사목, 새터민, 병원사목, 시각·청각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맡기에는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이 계셔서 참 든든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최근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분야는 이주사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교구에도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춘천이주한삶’과 ‘솔모루이주한삶’의 이름으로 복음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체와 베트남 공동체(춘천, 강릉, 주문진, 속초, 간성, 거진)가, 솔모루를 중심으로 필리핀, 동티모르, 베트남 공동체가 모임과 미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으로 가면 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분들이 있지만, 종교의 다른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이주사목위원회를 통해 대표적 송출국인 필리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송출 전 대기하는 숙소를 둘러봤는데, 마지막으로 들렀던 ‘스칼라 브리니’라고 하는 장소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이 특히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마태 25,35: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보니 필리핀이라는 같은 국가의 사람 이지만, 말과 풍습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주민 하면 외국인을 말하지만, 그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도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강원도 사람인 제가 제주도의 방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이방인, 이주민, 나그네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나그네라 표현하셨고, 그로 인해 모두를 따뜻이 맞아들여 주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선은 단순히 ‘물질적 배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저의 짧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오는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주민들 역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가난한 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의 처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때로는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나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나그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이들, 특히 이주민들과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자선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태 12,7)

▶담화 원문 보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제42회 자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자비’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태 12,7). 자선 주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시며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마태 18,33)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의 행복을 축원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그 옛날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내가 젊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마태 25,42).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은 그들이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내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를 천사의 세계로 이끕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

[신자재교육 교리상식]

고해성사는 얼마나 자주 보아야 하나요?

교회는 고해성사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소한 죄도 고백하고 용서받아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기를 장려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1458항 참조)

대죄를 지은 경우에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며, 대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특히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교회는 권고합니다. (사목 지침서 제90조 참조).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 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1코린 11,27-29). 대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성체를 모시는 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모령성체에 해당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까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고해성사로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을 자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5, 1458항 참조).